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 및 해외 진출 동향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백승현 교수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지원 한양대학교 컨설팅대학원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목 차

I. 신흥 시장과 글로벌 수요

1.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 추이
2. 중국 시장
3. 미국, 유럽시장
4. 부품 산업의 경쟁력

II.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발전 단계 및 환경

1.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발전 단계
2. 자동차 부품 산업의 거래 관계
 - 가. 자동차부품산업의 업체현황
 - 나. 자동차 산업 현황
3. 자동차 부품 산업의 환경변화와 유망품목

III.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1. 자동차 산업 현황
2.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
3.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평가
4. 국내 부품 업체의 SWOT 분석
 - 가. Strengths
 - 나. Weaknesses
 - 다. Opportunities
 - 라. Threats

IV.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해외 진출 동향

1. 유럽계 부품업체 동향 및 경쟁 구조
2. 미국계 부품업체 동향 및 경쟁력
3. 일본계 부품업체 동향 및 경쟁력

V. 차세대 자동차 부품 기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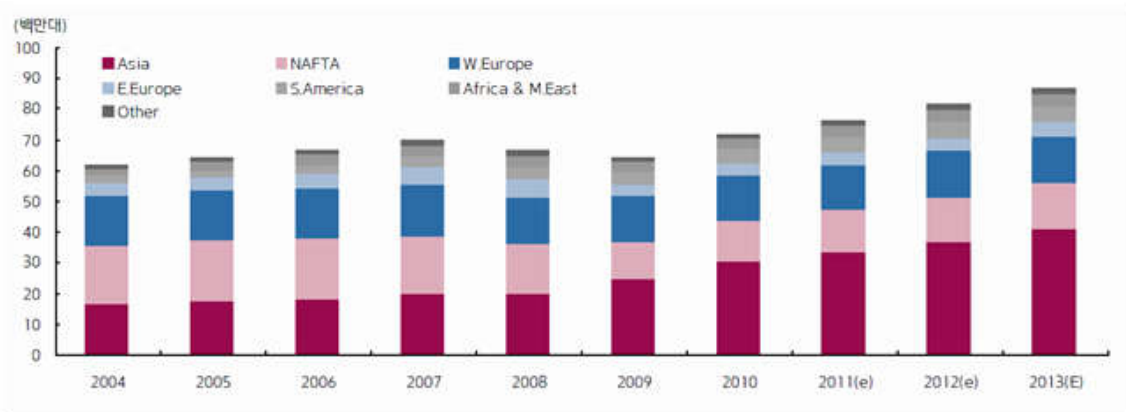
1. 차세대 자동차 부품 기술동향
2. 완성차 업체의 경쟁 구도 변화
3. 친환경 및 지능형 차량 관련 부품 업체

I. 신흥 시장 성장과 글로벌 수요

1.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 추이

2009년 중국시장이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등극한 이후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선진시장 역시 09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급감한 상태로 역성장에 대한 가능성 보다는 회복세 둔화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자동차 산업수요는 다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2년 글로벌 자동차 산업수요는 중국을 필두로 신흥시장의 성장 및 선진시장의 회복과 함께 2011년 7,550만대(추정) 대비 4.6% 증가한 7,9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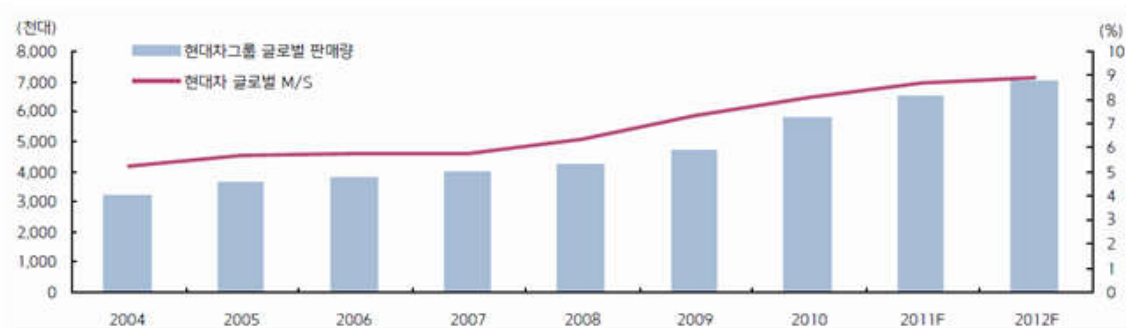
글로벌 자동차산업수요 추이 및 전망



자료: Global Insight 키움증권

2011년 현대차그룹은 연초 사업계획인 글로벌 650만대 판매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점유율은 2010년 8.0%에서 2011년 8.6%로 글로벌 자동차산업수요 감소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M/S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추세는 2012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현대차그룹의 2012년 판매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11년 650만대대비 7.7% 증가한 700만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2012년에도 글로벌 점유율은 8.9%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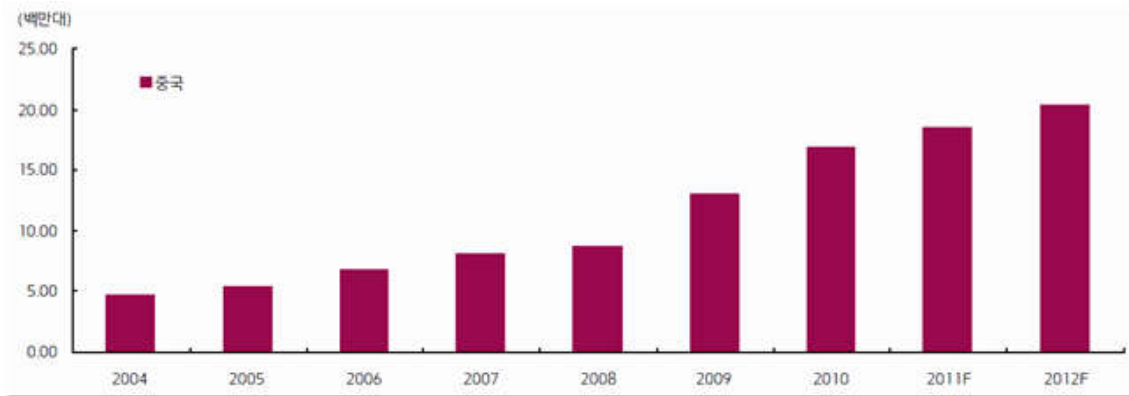
현대차그룹 글로벌 점유율 추이 및 전망



자료: Global Insight 현대차 기아차 키움증권

2. 중국시장

중국시장은 글로벌 최대시장으로 2012년에도 글로벌 자동차 산업수요 성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1,300만대를 판매하며 단일국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등극한 이후, 2010년에도 16,80만대(대형차 제외)를 판매하며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북경올림픽 이후 GDP 상승과 함께 Motorization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진국의 Motorization과 비교했을 경우 중국시장의 성장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중국 정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2011년 1,850만대에이여 2012년에도 19,50만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기조는 2010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2015까지 중국 GDP 성장률에 버금가는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자동차 산업수요 추이 및 전망
자료:Global Insight 키움증권

중국 자동차 산업수요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공급과잉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지만, 이는 아직 100여개(CKD 조립업체 포함)의 자동차업체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심 산업 중 하나로 15년까지 외사의 JV를 설립한 로컬업체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이 재편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 역시 핵심 업체들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육성에 집중하며 생산 Capa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가 생산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2011년 종료됐던 소비장려정책을 다시 시행하며 공급과잉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미 중국의 개발이 동부에서 중부, 서부로 이어지고 있어 동부지역에 편중돼있던 자동차 판매도 중, 서부지역의 소득수준 향상, 도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정부의 긴축 기조도 다시 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수요가 성장세를 지속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현대, 기아차는 각각 73만대, 43만대 중국 내에서 생산, 판매하였고, 2012년 7월에는 30만대 규모의 북경 3공장 가동과 함께 15~20만대의 추가 생산 여력을 확보하며 중국산업수요 증가를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2013년에는 북경 3공장이 Full 가동될 것이고, 2014년 말에는 기아차 중국 다공장 완공이 예정돼있어 점진적 Capa 확장과 동시에 현대, 기아차 핵심차종들의 현지 반응과 판매도 양호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중국 시장 확대를 기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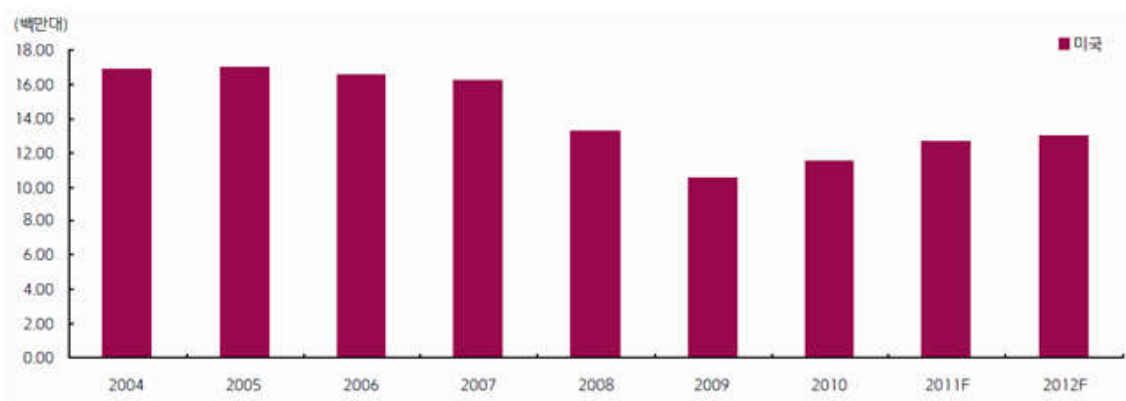
볼 수 있는 상황이다

3. 미국, 유럽시장

미국시장은 중국이 단일국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기 전 가장 주목 받던 시장으로 2007년, 1,700만대 수준에서 미국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040만대로 급감하였으나, 타 지역대비 대형차가 선호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놓지 못하는 시장이다. 산업수요 자체는 2년이 지난 지금 1,250만대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황으로,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더블딥 우려가 불거지면서 2012년 산업수요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시장의 자동차 산업수요가 현 수준대비 감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2011년 자동차 산업수요가 1,250만대를 기록한다고 가정한다면, 미국 내 총 UIO를 감안했을 경우, 신차의 판매 주기는 16년 정도로 추정되는 수준이다. 미국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16년만에 신차를 교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상황이 2009년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자동차는 필요에 의해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필수소비재의 개념으로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미국 시장은 이미 한차례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회복국면에 있기 때문에 올해와 비슷한 매크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자동차 산업수요가 전년대비 역성장 하기보다는 회복세를 이어가되, 속도가 소폭 둔화되는 정도에 그치며 2011년 1,250만대 대비 7.2% 증가한 1,34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자동차 산업수요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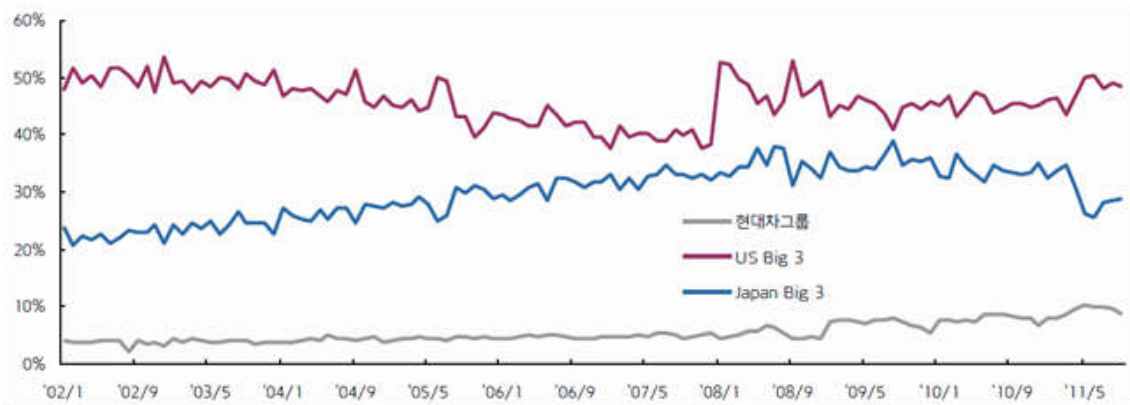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키움증권

전술했듯이, 미국시장은 단일국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시장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놓지 못하는 시장이다. 이런 중요한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는 산업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도 지속적인 판매 증가와 M/S 확대를 하였고, 2011년에는 각각 63만대, 49만대 판매 하며 그룹사 기준 최초로 미국시장 1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미국시장 점유율은 2010년 7.7%에서 2011년 8.8%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증가 추세는 2012년 예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에는 경쟁업체들이 신차출시를 앞세워 판매 증가 및 MS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미국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

비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브랜드가치 보다는 중고차의 잔존가치, 고연비, 고출력 차종, 품질보증기간 등 미래 자산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성을 확보한 현대, 기아차의 판매가 경쟁심화로 인해 감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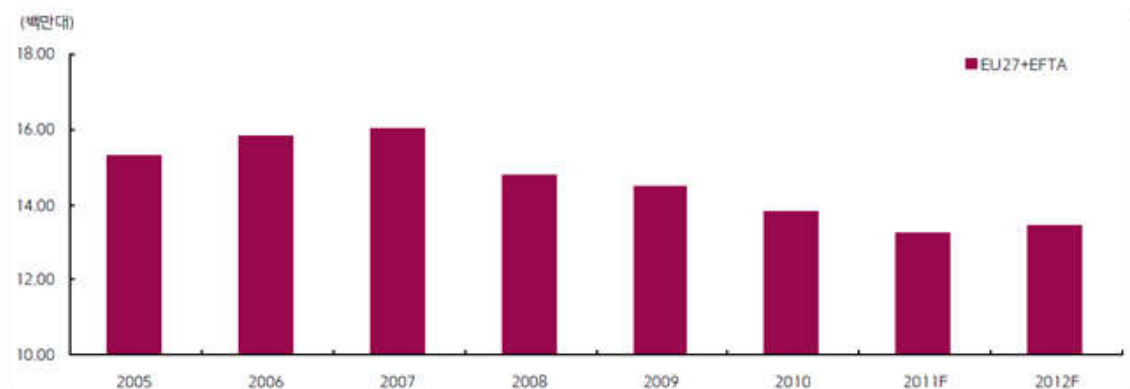
현대, 기아차 미국 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Automotive News 현대차 기아차 키움증권

07년부터 자동차 산업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 유럽시장의 경우, 재정위기의 근원지인 만큼 2012년에 대한 판매 전망이 불투명하다. 하지만 2011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감소폭이 작아지고 있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는 곳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럽 역시 미국과 같이 자동차가 필수 소비재로 전환되는 수준까지 전환되는 수준까지 감소한 상황으로 2012년 산업수요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보다는 기저효과로 인해 2011년 1,320만대 대비 1.5% 증가한 1,34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감소세가 멈췄다는 점은 교체 수요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고, 대기수요가 누적된다면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전환되었을 때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 자동차 산업수요 추이 및 전망



자료: ACEA 키움증권

유럽시장은 소비자들이 유럽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고, 유럽업체들의 장점인 디젤 차량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공략에 나섰지만 대부분 실패하